

법무매거진

대법관 0순위 vs 김명수 브레인...
최태원·노소영, 변호사 전쟁



-盧관장이 한승 변호사 선임하자 崔회장, 김현석 변호사 추가 선임



한승 변호사(왼쪽),
김현석 변호사(오른쪽)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할 변호인으로 김현석(54,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5월 기존 변호인단을 사임시키고 이 사건을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57,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에게 맡겼다. 법조계에선 “손꼽히는 전관 변호사 두 명이 맞붙게 됐다.” ‘별들의 전쟁’이란 말이 나왔다. 노소영 관장이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에 ‘대법관 0순위’로 통하던 한승 변호사를 선임하자, 최태원 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브레

인’으로 통하는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해 맞붙을 놓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노 관장의 변호인이 한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보고 “한승이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야?”라고 참모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또 노관장이 한승 변호사 외에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도 추가 영입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는 공통점이 많다. 모두 대법원의 상고심(3심) 실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서도 법리(法理)에 강한 사람이 가는 최고 엘리트 보직이다. 이 자리를 거치면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인 2013~2014년 이 자리에 있었다. “당시 한승 수석재판연구관이 한마디 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그걸 기초로 검토 보고서를 썼다.”(부장판사)는 말이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부터 2년간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임명돼 양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다. 특히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그를 유임하고 상고심 재판 분위기를 익힐 정도로 신임이 커 ‘김명수의 브레인’이라고도 불렸다. 수도권 한 법원장은 ‘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의 맥을 금방 잘 짚고, 김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을 숙지해 단단한 논리를 만드는 스타일’이라며 “서로 매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재판 결과가 궁금하다.”고 했다.

둘은 평판사 때부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두 사람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주

니어 때부터 법원 내 실력파로 분류돼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 초, 김 변호사는 작년 초에 사표를 내고 법복(法服)을 벗었다. 두 사람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사건에 휘말려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연루됐으며 정치권의 공격을 받았고, 김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다. 둘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을 했고, 이것이 법원을 떠난 주요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많다.

두 사람은 각광받는 전관 변호사로 통한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변호사도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논란에 휘말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처 /조선일보)